



¹무제가 책문을 내려 물었다.

²삼대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어디에 있는가? ³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왜 일어나는가? ⁴사람의 성질과 수명의 실상을 보면, 혹은 어질고 혹은 비루하며, 혹은 장수하고 혹은 요절하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 ⁵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

⁶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⁷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지나간 사례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⁸국가가 올바른 도리를 잃어 패망에 가깝게 될 때에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꾸짖고 경고합니다. ⁹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면 또 괴이한 현상을 내보여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¹⁰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에야 손상과 패망이 이르게 합니다. ¹¹하늘은 어진 마음으로 군주를 사랑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¹²크게 도리를 잃은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니, 우리가 할 일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¹³열심히 도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덕은 날로 일어나고 공적이 크게 쌓일 것입니다. ¹⁴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으로 가는 길로서 인의예악(仁義禮樂)은 모두 그 도구가 됩니다. ¹⁵공자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치란과 흥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¹⁶하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제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¹⁷『서경』에서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들어오고, 불이 일어 대왕의 지붕으로 깃들어 까마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¹⁸이러한 상서(祥瑞)를 보고 주공이 “보답이로다! 보답이로다!” 하였고, 공자는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¹⁹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방탕과 나태로 쇠퇴해진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²⁰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못하여 사악한 기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아래 쌓이니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생겨 상하가 조화

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²¹이 때문에 음양이 뒤틀리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²²명(命)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요, 성(性)이란 생명체의 본 바탕이라고 신은 들었습니다. ²³수명의 장단, 성질의 어짢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이 그릇을 빚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만들듯이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²⁴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²⁵공자께서는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²⁶그러므로 요·순 임금께서 덕을 베풀자 백성들은 어질게 되고 장수했으며, 걸·주 임금이 폭정을 행하자 백성들은 비루해지고 요절했습니다.

²⁷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글을 살펴 왕도의 시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정(正)에 있었습니다. ²⁸‘春王正月’이라 하여, ‘정’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고, ‘왕’은 ‘봄[春]’의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²⁹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입니다. ³⁰따라서 그 뜻은 위로는 하늘이 행하는 바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바르게 함으로써 왕도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³¹그러므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

01 무제의 질문에 대한 동중서의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악으로써 다스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
- ②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나타난다.
- ③ 제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는 하늘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
- ④ 절후(節候)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면 제왕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을 본받아 정월을 제정하듯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 ⑤ 사람의 성질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왕은 그것을 바꾸려해서는 안 된다.

02 동중서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며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
- ② 옛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홀연히 새것이 된다. 선왕의 예교(禮敎)는 시대의 용도에 따른 것이니, 시대가 지났어도 폐기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요괴가 된다.
- ③ 사물이나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것을 피하고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각기 서로 끌리어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다.
- ④ 자연계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한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물리지 않으며,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 하여 광야를 거두지 않는다.
- ⑤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으니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천지는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짐승은 풀을 뜯고, 사람을 위해 짐승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다.

03 윗글의 맥락에서 ㉠을 이해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온 백성이 고루 제왕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제왕의 덕치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치 운영에서 제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왕과 백성의 자질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04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국왕과 신하는 동일한 정치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큰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고려 왕조 시기 이른바 ‘천인 감응(天人感應)’ 혹은 ‘천인 합일(天人合一)’ 사상이 유행한 것이다. 이는 하늘과 인간은 하나로서 서로 감응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 현상의 하나인 재이(災異)는 정치와 도덕이 문란하여 음양의 운행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반면, 군주가 도(道)를 따르면 음양의 운행이 정상화되어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군주는 천(天)의 대행자인 초인간적 존재이므로, 군주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하늘이 재이를 통하여 군주의 잘못에 대한 경고인 천견(天譴)을 내린다는 것이다.

- ① <보기>의 ‘동일한 정치 이념’과 관련하여, 윗글의 동중서는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함으로써 왕과 신하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② <보기>의 ‘천인 합일(天人合一)’과 관련하여, 윗글의 동중서는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냈으나 모든 사람이 하늘과 합일을 이룰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보기>의 ‘재이(災異)’와 관련하여, 윗글의 동중서는 정치의 문란으로 재이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이를 돌이킬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④ <보기>의 ‘상서로운 현상’과 관련하여, 윗글의 동중서는 이를 덕이 있어 제왕이 될 수 있는 자가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⑤ <보기>의 ‘천(天)의 대행자’와 관련하여, 윗글의 동중서는 봄을 하늘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해의 시작을 정하는 것은 바로 ‘천의 대행자’인 왕이라고 볼 것이다.

05 a,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a :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b :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잠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 ② a :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b : 괜한 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③ a : 책상을 옮기다 실수로 바닥에 흠집을 만들었다.
b : 여행경비를 만들기 위해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 ④ a : 지각하는 바람에 나는 결국 완성작을 만들지 못했다.
b :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 ⑤ a : 두려움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b : 오늘은 내가 저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문을 현대어로 번역한 지문이다. 일반적인 현대의 글처럼 글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항목을 조목조목 나누어 글을 쓰지 않아서, 별 생각없이 읽었다가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난해한 지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글은 글쓴이가 말하려는 바가 있고, 그것은 문장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문장이 연결되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단락 단위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또 연결해 나가면서 한편의 글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독자는 문장 단위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나아가 단락을 구성하고, 단락 간의 연결을 고민하면서 필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지문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이자 학생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번 문장에서 무제가 책문을 내려 '무엇을' 물었으며, 6번 문장에서 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고 할 때,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글의 가장 기본 구조인 의문(질문)과 답변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글을 읽어 나갔어야 한다. 학생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이 중심 구조는 쉽게 보이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큰 그림만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글의 기본 구조에 훨씬 주목하고 이 지점에 대해 집요하고 정교해져야 한다. 이 글에서도 이 두 문장이 전체 글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글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야 독해의 포인트도 명확해진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뽀얀 안개 속을 하염없이 헤매는 막막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매번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점이지만, 국어 공부는 공부를 해 나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고 따지고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국어의 각 파트별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생각을 어떤 순서로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독해를 돌아보게 하는 지문이 될 것이다.

01 ★★★★★

정답 ⑤

정답 해설

선지를 끊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의 전반부인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다'까지는 옳다. 하지만 후반부의 '제왕이 그것을 바꾸려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5번과 26번 문장을 보면 요·순 임금이 덕을 베풀었을 때 백성들을 어질게 되었고 걸·주 임금의 경우 폭정을 해하자 백성들이 요절했다는 것을 통해 제왕이 통치로 백성들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제왕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의예악(仁義禮樂)'과 관련된 내용은 14번 문장에서, '형벌'과 관련된 내용은 20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19~20번 문장을 보면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상하가 조화롭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1번 문장을 보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천재지변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③ 16번 문장에서의 '징표', 17번 문장에서의 '서경'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절후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 이라는 표현은 무제의 질문 중에서 5번 문장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와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단락 30번과 31번 문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선지의 후반부는 적절하다.

02 ★★★★★

정답 ③

정답 해설

선지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서로 끌리어 일어난다 했다. 지문의 어느 부분에 딱 들어맞는 서술은 없으나, 글 전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야 한다. 특히 16~18번 문장에서 하늘이 제왕을 세울 때는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부분, 19~21번 문장에서 왕이 정치를 잘못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진술, 그리고 25·26번 문장에서 군자와 소인, 제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인문 제재이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고를 수 있는 까다로운 선지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선지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성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번 문장에서는 '성'이란 생명체의

본바탕이라는 진술도 있다. 하지만, 23번 문장을 보면, 성질의 어둡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과 대장장이가 어떤 그릇과 철기를 만드느냐에 달린 것이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늘이 만들어 냈다고 했다. 24번 문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일부는 선하게 일부는 악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오로지 본성에 의해 악한 품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선지가 예교(禮敎)는 시대에 따라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적절한 시점에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7번과 27번 문장을 포함한 글 전체를 보면 동중서는 모든 것의 전범을 과거 성인들의 말이나 행적에서 찾고 있다. 고문을 인용한다는 것은 옛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번 문장을 보면, 동중서는 하늘의 명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번 역시 동중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 ④ 선지는 자연계와 인간 세상이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7번 문장에서 동중서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그러한 내용을 8~11번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서 재해, 기이한 현상 등으로 인간 세상에 명백히 개입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16번 문장에서는 하늘이 어떤 사람을 제왕으로 세울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④번 역시 동중서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⑤ 선지는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다'고 했다. 이는 곧 노자나 장자의 무위(無爲)와 통한다. 하지만, 지문 전체의 흐름에서 보자면, 그 중에서도 특히 11번 문장에서 하늘은 어진 마음으로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다고 했고, 12번 문장에서는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쓴다'고 하였고, 우리가 할 일도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무위가 아닌 작위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03 ★★★★★

정답 ①

정답 해설

①에서 군자를 바람으로, 소인을 풀에 비유해 설명한 것은 군자(제왕)의 덕이 소인(백성)의 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어지는 26번 문장처럼, 군자의 덕이 세상에 퍼질 수 있고 그를 통해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선지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⑥가 선결 조건이 되고, ③이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은 ②가 되어,

④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①은 사실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즉, 하늘의 뜻이 만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화법·작문·문학·독서의 모든 국어 영역에서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것은 문항 출제의 가장 기본 방식임을 잊지 말자.

04 ★★★★★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 재이(災異)는 정치와 도덕의 문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윗글의 '천재지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5번 문장에서 동중서는 "치란과 흉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재이가 한 번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보리라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서 '동일한 정치 이념'은 '천인 감응' 또는 '천인 합일'을 뜻하는데, 이는 윗글에서 동중서가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와도 일맥상통한다. 31번 문장에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보기〉에서 '천일 합일'은 하늘의 뜻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감응한다는 것인데, 이는 윗글에서 하늘이 내린 명을 군주가 따른다는 것과 상통한다. 동중서는 24번 문장에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였고, 25~26번 문장에서 덕을 베푸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임금이 군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보기〉의 '상서로운 현상'은 군주가 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것으로, 윗글에서 제왕이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와 일맥상통한다.
- ⑤ 〈보기〉의 '천의 대행자'는 임금이 천명에 따라 하늘의 뜻인 도를 행하여 덕을 베푼다는 윗글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29번 문장에서 '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고,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기〉의 '천의 대행자'를 이해하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